

貞觀之治의 이론서 《群書治要》*

김광일**

1. 唐太宗의 帝王學 교과서

唐太宗 이세민(599~649)의 언행을 기록한 책 《貞觀政要》는 역대로 동아시아 군왕들의 帝王學 교과서였다. 隋末唐初의 대혼란을 수습하고 당 왕조의 기틀을 공고하게 다진 唐太宗의 업적은 그 자체로 천하를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들에게 훌륭한 참고의 체계를 제공했을 테지만, 唐太宗이 조정의 신하들과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치국의 방법을 모색하던 과정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평이한 문체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貞觀政要》의 매력도 이후 帝王들이 이 책을 즐겨 읽게 되었던 주요한 이유였을 것이다. 신하들의 입장에서 이 책이 군주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경계하고 관료들의 간언을 수용하는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군주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한 문헌이었다. 이 때문에 《貞觀政要》는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이나 일본에서도 통치자들의 필독서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된다.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群書治要〉研究》(復旦大學, 2010)의 제1장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임.

**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연구교수

그런데 당연하게도 《貞觀政要》의 주인공인 唐太宗에게는 이 책이 없었다. 사실 “玄武門의 변란”이라는 무리한 군사 쿠데타를 통해 친형제를 살육하고 아버지를 핍박하여 즉위한 이 젊은 황제에게는 무엇보다도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치국의 방법을 가르쳐줄 帝王學 교과서가 필요했다. 唐太宗은 군용이 할거한 혼란한 정국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유능한 장수이기는 했지만 대제국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만한 통치의 교육을 착실하게 받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唐太宗은 즉위한 다음 흡사 강바닥의 돌을 더듬으며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실천적 과정을 통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그러한 실천적 과정이 치열한 이론적 모색을 통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貞觀 시기 군신들은 끊임없는 논쟁을 통해 제국 운영의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였다. 특히 진왕 시절부터 이세민에게 정책적 참모의 역할을 수행했던 문학관의 학사들을 중심으로 東南 士人들은 唐太宗에게 국가운영의 이론적 참고체계를 제공하는 데에 큰 힘을 기울였다. 그 구체적인 성과물이 《帝王略論》, 《群書治要》, 《자고제후왕선왕록》 등이다. 唐太宗 역시 자신의 치국 경험을 총괄하여 《帝範》이라는 帝王學 교과서를 남긴다. 그 중에서도 《群書治要》는 唐太宗이 극찬한 책이다.

朕은 어렸을 때 군사적인 일[武]에만 신경을 썼지 공부는 잘하지 못 했다. 그래서 “先王之道”라는 말만 들어도 바다를 건너는 같이 막막한 느낌이었다. 그런데 지금 새로 편찬한 이 《群書治要》는 여러 문헌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예전에 못 보았던 것을 볼 수 있었고 못 들었던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책을 읽고 나서朕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옛 일을 헤아리게 되었고 일에 닥쳐서도 불안하지 않

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책을 편찬하는 데에 들인 노고가 대단히 컸을 것이다.¹⁾

唐太宗에게 《群書治要》는 “나라를 다스리면서 옛 일을 헤아리고 일에 닥쳐서도 어떤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책이었다. 이 책은 역대 帝王들의 득과 실을 알고 싶어 하는 唐太宗을 위해 貞觀 5年(631) 魏徵, 虞世南, 褚亮, 蕭德言 등이 함께 편찬한 것이다.²⁾ 말하자면 《群書治要》는 《貞觀政要》와 같은 참고서가 없었던 唐太宗을 위한 帝王學 교과서로서, 이른바 “貞觀之治”의 이론적 배경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헌은 송대 이후 중국에서 일실되었다. 이 책이 18세기 말 일본에서 중국으로 다시 건너왔을 때 당시 최고의 문헌 소장가였던 鮑廷博조차도 《舊唐書》〈經籍志〉 등에 저록된 책인지도 모를 만큼 중국에서는 철저히 잊힌 문헌이 되고 만다.³⁾ 현재로서도 이 책의 각 판본의 문헌 가치에 대한 몇몇 소개글과 논문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상황이다.⁴⁾ 이 글에서는 《群書治要》 편찬의 역사적 배경, 편찬인과 편찬기구, 내용적 지향 등을 분석하여, 이 책이 “貞觀之治”를

-
- 1) 劉肅, 《大唐新語》卷三, 〈著述〉: “朕少尚威武, 不精學業, 先王之道, 茫若涉海. 覽所撰書, 博而且要, 見所未見, 聞所未聞, 使朕致治稽古, 臨事不惑, 其爲勞也, 不亦大哉!”
 - 2) 《唐會要》卷三六, 〈修撰〉: “貞觀五年九月二十七日, 秘書監魏徵撰《群書治要》上之. 太宗欲覽前王得失, 爰自六經訖于諸子, 上始五帝下盡晉年, 徵與虞世南, 褚亮, 蕭德言等始成凡五十卷, 上之. 諸王各賜一本.”
 - 3) 《群書治要》의 유전에 관해서는 김광일, 《〈群書治要〉의 일본전래》, 《中國語文學》 제52집(영남중국어문학학회, 2008) 참조.
 - 4) 福井保, 〈天明版《群書治要》校勘始末記〉, 日本書誌學會, 《書誌學》第6卷 第3~4號(東京: 書誌學社, 1936); 尾崎康, 《〈群書治要〉とその現存本》, 《斯道文庫論集》第25輯(東京: 慶應大學, 1991); 吳金華, 〈略談日本古寫本《群書治要》的文獻學價值〉, 《古文獻整理與古漢語研究續集》(南京: 鳳凰出版社, 2007) 참조.

만들어 가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2. 《群書治要》의 편찬 배경

1) 貞觀 초기 치국 방침에 관한 논쟁과 東南 士人들의 대응

唐나라 초기의 혼란한 정국이 서서히 안정을 찾게 되는 貞觀 초기, 조정에서는 새로운 왕조를 공고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제국운영 방침에 대한 논쟁이 격렬하게 진행된다. 당시 최고 권력집단의 가장 큰 문제의식은 “그토록 강성했던 隋나라가 어찌하여 멸망했는가”였다. 수 백 년 동안 남북조로 분열된 중국 대륙을 통일할 만큼 막강한 국력을 갖춘 隋나라가 농민봉기와 군웅할거의 와중에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貞觀 시기의 군신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국의 발전과 번영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隋나라 멸망 과정에서 확인된 백성들의 폭발적 힘을 제어할 방법을 찾는 것이 토론의 핵심적인 주제였다.

예를 들어, 唐 太宗이 막 즉위한 武德 9年(626) 11월에 벌어진 “백성들의 폭도화 방지책[止盜]” 논쟁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太宗은 “중형을 내림으로써 백성들의 폭도화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에 반대하면서 가중한 세금과 부역, 관리들의 貪汚 등 사회 경제적 문제가 폭도를 만들어내는 근본원인이라 지적한다.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유화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으로서,⁵⁾ 이는 隋나라 때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정책

5) 《資治通鑑》卷一九二：“民之所以爲盜者，由賦繁役重，官吏貪求，飢寒切身，故不暇顧廉恥耳。朕當去奢省費，輕徭薄賦，選用廉吏，使民衣食有餘，則自不爲盜，安

적 변화였다. 나중에 魏徵은 이러한 유화정책을 “靜”과 “安”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새로운 唐나라의 치국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다.⁶⁾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唐나라 건국의 핵심 세력인 關隴 집단이 아니라 東南 士人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백성들의 폭도화 방지책” 논쟁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관대한 형벌” 논쟁에서 그 점을 더욱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太宗은 즉위 초에 《武德律》을 보완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면서, 대혼란 직후의 상황에서 백성들을 教化로 다스린다면 너무 조급한 것이 아닌지를 묻는다. 魏徵은 《孟子》에 나오는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비유를 들어 교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데, 封德彝는 “魏徵은 한낱 서생에 불과하여 세상일을 모릅니다. 魏徵의 공허한 말을 믿으시면 나라가 망하고 말 것입니다”고 말하며 魏徵의 의견에 극렬히 반대한다. 이에 대해 魏徵은 다시 봉덕이의 주장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면 논박한다.

이러한 일련의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貞觀 초기 통치집단 내부에서 격렬한 권력 투쟁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는 唐 太宗이 세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인사들을 招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세력 간의 갈등이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는 토론을 통해 표출된 것이다. 둘째로, 이 점이 더 중요한데, 세력 갈등의 양상이 “玄武門의 변란”과 같은 무력 투쟁으로 나타나지 않고 논리와 역사적 근거에 바탕을 둔 이론 투쟁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 이론 투쟁의 성패는 논쟁을 주재하는 太宗을 어떻게 설득하는가에 달려 있었다. 그리하여 논쟁에 임하는 쌍방은 풍부한 이

用重法邪?”

6) 《貞觀政要》卷八〈刑法〉: “隋氏以富強而喪敗, 動之也. 我以貧窮而安寧, 靜之也.. 靜之則安, 動之則亂. 人皆知之, 非隱而難見也, 非微而難察也.”

론과 역사적 실례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帝範》의 서문에서 “여러 역사書를 두루 살펴보고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따로 모아서 현재의 경계로 삼는다(博採史籍, 聚其要言, 以爲近誠云爾)”고 했듯이, 唐太宗은 역사적 실례에서 어떤 교훈을 찾아내고 그것을 개념화하여 자신의 통치의 참고자료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 운영의 기본적 방침에 대한 토론이 대개 과거 역사의 득실을 논하는 양상을 띠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群書治要》는 단순히 치국의 방침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자료였을 뿐만 아니라, “세상일을 모르면서 공허한 말만 하는 서생”들이 唐太宗과 보수파 대신들을 설득하는 강력한 무기였다. 胡三省은 “唐太宗이 무력으로 혼란을 극복할 때 항상 같이 다니던 사람들은 西北 출신의 무사들이었다. 천하가 안정된 이후에는 弘文館 학사를 엄정히 선발하여 밤낮으로 토론하고 상의하였는데, 모두 東南 출신의 유생들이었다. 그러니 儒를 버리고 어찌 守成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며 貞觀시기 인재 기용의 변화와 儒生의 효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⁷⁾ 《群書治要》 편찬에 참여한 네 명의 諫官과 학사들은 모두 東南 출신의 유생이었다. 다시 말해 《群書治要》는 貞觀 초기 전개된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東南 士人이 취한 이론적 대응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7) 《資治通鑑》卷一九二, 胡三省注: “唐太宗以武定禍亂, 出入行間, 與之俱者, 皆西北驍武之士. 至天下既定, 精選弘文館學生, 日夕與之議論商榷者, 皆東南儒生也. 然則欲守成者, 舍儒何以哉.”

2) 帝王을 위한 문헌의 편찬

貞觀 초기에 魏徵은 唐太宗에게 “武를 버리고 文을 닦는다면, 나라가 안정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국가들도 저절로 복종할 것”이라고 건의했는데,⁸⁾太宗이 이를 받아들여 여러 가지 문교 정책을 시행한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유학의 존숭, 학교의 확충, 예악의 정비, 도서수집, 경전과 史書 편찬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群書治要》의 편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교정책은 도서편찬 사업이었다. 貞觀 시기에는 몇 차례에 걸쳐 유교 경전에 대한 정리와 정본화 작업을 진행하여 《五經正義》를 완성하였으며, 국가의 역사편찬 제도를 확립하여 《晉書》, 《隋書》 등 初唐八史를 편수했다. 《群書治要》의 편찬 역시 이러한 대규모의 도서 편찬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群書治要》는 대상 독자의 측면에서 경전이나 史書의 편찬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경전의 정리와 주석 작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 이데올로기의 통일에 있기 때문에, 《五經正義》는 전국적인 교과서로서 세상에 반포되어 널리 읽히게 된다. 史館을 설치하여 史書를 편수하는 것도 결국 국가가 역사 해석의 표준을 여러 사람들에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貞觀 시기의 대형 편찬사업은 본질적으로 조정의 외부로 개방되어 있다. 반면에 《群書治要》는 최고 권력자에게만 제공되는 황실 내부의 자료로서 그 閱讀과 유통의 범위가 극히 협소했다. 貞觀 시기에는 이렇게 황실의 성원들에게만 제공되는 帝王學 교재로 《群書治要》 이외에도 《帝王略論》, 《自古諸侯王善惡錄》, 《帝範》 등이 편찬

8) 《資治通鑑》卷一九三: “偃武修文, 中國既安, 四夷自服.”

되었다.

虞世南이 편찬한 《帝王略論》 5卷은 역대 帝王에 대한 史論이다. 이 책의 편찬연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대략 太宗이 즉위한 武德 9年에서 貞觀 3年 사이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東洋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금택문고본의 卷首에 “太子中舍人弘文館學士虞世南奉敕撰”이라고 찬자를 밝히고 있는데, 虞世南이 弘文館 학사가 된 것은 당 太宗의 즉위 직후이기 때문이다.⁹⁾ 虞世南은 〈進《帝王略論》表〉에서 “폐하께서는 萬機를 살피시는 틈틈이 典籍에 마음을 두시어 前代의 흥망과 득실을 거울로 삼으셨습니다. …… 이 책은 각 史書의 부박한 언사를 깎고 긴 내용을 잘라내어 간명하게 정리한 후 논평을 덧붙였습니다”라고 하며 《帝王略論》의 편찬배경과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¹⁰⁾ 이 책에서는 太昊부터 隋文帝까지 역대의 帝王의 전기를 “略曰”의 형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公子와 先生의 문답을 통해 각 帝王의 성패에 대해 논하고 있다. 《自古諸侯王善惡錄》은 魏徵이 편집한 책으로서 《群書治要》의 자매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현재 전하지는 않지만, 侯王들에게 경계가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自古諸侯王善惡錄》이라 제명하고 각 侯王들에게 하사했다는 기록이 《貞觀政要》에 보인다.¹¹⁾ 《群書治要》가 황제를 위한 책이었다면 《自古諸侯王善惡錄》은 황실의 여러

9) 尾崎康, 〈虞世南의《帝王略論》について〉, 《斯道文庫論集》 第五輯(1967年), 190 쪽 참조.

10) 陳尚君, 《全唐文又再補》(北京: 中華書局, 2005年) 卷一: “以萬機餘暇, 留心墳典, 鑑往代之興亡, 覽前修之得失. 今宜翦截浮辭, 刪削冗長, 略存簡要, 隨而論之.”

11) 《貞觀政要》 卷四 〈教戒太子諸王〉: “貞觀七年, 太宗謂侍中魏徵曰: ‘自古侯王能自保全者甚少, 皆由生長富貴, 好尚驕逸, 多不解親君子遠小人故爾. 朕所有子弟欲使見前言行, 冀其以爲規範.’ 因命徵錄古來帝王子弟成敗事, 名爲《自古諸侯王善惡錄》, 以賜諸王.”

侯王이 독자였던 것이다. 唐太宗이 직접 남긴 《帝範》 역시 貞觀 시기에 편찬된 帝王學 교재라 할 수 있다. 貞觀 22年(648)太宗은 자신의 통치 경험을 체계적으로 총괄하여 황태자 李治에게 내린다. 이 책의 내용은 주로 황제의 지위와 수양, 용인술, 정치적 태도, 경제정책 등을 다루고 있어, 貞觀 시기 帝王學에 대한 일종의 결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貞觀年間에만 황실 내부에서만 유통되는 문헌을 여러 종 편찬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貞觀政要》의 주인공인 唐太宗 자신은 치국의 핵심적 사항을 간명하게 담고 있는 帝王學 교재에 꽤 목말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미있는 점은 貞觀 시기에 편찬했던 이러한 帝王學 교재들이 《貞觀政要》의 내용과 형식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帝王略論》에서는 前代 군왕들의 구체적인 행적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으며, 《群書治要》는 기존의 여러 문헌에서 치국에 관련된 이론과 실재를 발취하였다. 이 두 책에서는 아직 어떤 체계를 갖추어 개념화되지는 않았지만 주로 군주의 역할과 마음가짐, 관료의 선발, 간언의 수용, 정치·경제·문화·군사 정책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총 열 두 주제로 개념화하여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帝範》이다. 그런데 《帝範》의 주제 분류가 《貞觀政要》와 매우 유사하다.

	篇目
《帝範》	〈君體〉, 〈建親〉, 〈求賢〉, 〈審官〉, 〈納諫〉, 〈去讒〉, 〈誠盈〉, 〈崇儉〉, 〈賞罰〉, 〈農務〉, 〈閱武〉, 〈崇文〉
《貞觀政要》	〈君道〉, 〈政體〉, 〈任賢〉, 〈求諫〉, 〈納諫〉, 〈君臣鑑戒〉, 〈擇官〉, 〈封建〉, 〈太子諸王定分〉, 〈尊敬師傅〉, 〈教戒太子諸王〉, 〈規諫太子〉, 〈仁義〉, 〈忠義〉, 〈孝友〉, 〈公平〉, 〈誠信〉, 〈儉約〉, 〈謙讓〉, 〈仁惻〉, 〈慎所好〉, 〈慎言語〉, 〈杜讒佞〉, 〈悔過〉, 〈奢縱〉, 〈貪鄙〉, 〈崇儒學〉, 〈文史〉, 〈禮樂〉, 〈農務〉, 〈刑法〉, 〈赦令〉, 〈貢獻〉, 〈辨興亡〉, 〈征伐〉, 〈安邊〉, 〈行幸〉, 〈畋獵〉, 〈災祥〉, 〈慎終〉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貞觀政要》의 주제 분류가 훨씬 세분화되기는 했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대부분 《帝範》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開元 시기의 吳兢이 《貞觀政要》를 편찬할 때 《帝範》을 상당한 참고체계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3. 《群書治要》의 편찬인

《唐會要》와 《大唐新語》의 기록에 따르면 《群書治要》는 魏徵, 虞世南, 褚亮, 蕭德言 등이 함께 편찬했다고 한다. 하지만 《群書治要》를 편찬한 일이 正史에서는 단지 《新唐書》〈蕭德言傳〉에만 보이기 때문에 阮元은 이 책이 주로 蕭德言의 손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측한다.¹²⁾ 《群書治要》 편찬에 참여한 네 명의 경력과 책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 책은 아마도 蕭德言이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분류작업을 진행한 후 虞世南과 褚亮이 그것을 바탕으로 초고를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魏徵이 서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蕭德言(558~654)은 字가 文行이고 蘭陵人이다. 隋나라 仁壽年間에 校書郎에 제수되었으며, 唐나라가 들어선 후 武德年間에는 太子洗馬에 있으면서 《梁史》를 편수하는 작업을 한다. 貞觀年間에는 著作郎에 제수되었고 弘文館學士를 겸임한다. 唐 高宗 李治가 晉王이었을 때부터 李治에게 經書를 강의했으며 태자가 된 다음에는 侍讀을 겸하기도 했다. 蕭德言은 여러 경전과 史書에 정통했는데, 특히 《春秋左氏傳》에 뛰어났다

12) 阮元, 《史庫未收書提要》卷三〈群書治要〉 참조.

고 한다.¹³⁾ 현재 남아 있는 전기를 통해 보면 학문에만 매진하는 학자였던 듯하다. 《舊唐書》〈經籍志〉에 기록된 일화를 통해 그의 학문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蕭德言은 만년에 이르러 학문에 매진하여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쉬지 않았다. 五經을 읽을 때면 항상 의관을 정제하고 깨끗한 자세를 유지했다. 하루는 아내가 걱정을 하여 물었다.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 피곤하지 않으신지요?” 그러자 蕭德言이 대답했다. “옛 성인들의 말씀을 공경하는 것이 무에 그리 피곤하겠는가?”

唐太宗의 蕭德言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아 그가 致仕를 하자 직접 서신을 보내 蕭德言의 장수를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 치사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¹⁴⁾

褚亮(560~647)은 字가 希明이며 杭州 錢塘人이다. 어렸을 때부터 글을 잘 썼고 읽지 않은 책이 없었으며 한 번 읽은 내용은 모두 외웠다고 한다. 열여덟에 陳나라에서 출사했으며 尙書殿中侍郎에 임명되었다. 隋나라 때는 東宮學士, 太常博士 등을 지냈는데 大業 말년에 隋 煬帝의 시기로 폄적되기도 한다. 唐나라에 들어서는 李世民의 秦府 文學館 學士가 되었다가, 貞觀元年에 弘文館 學士에 제수된다. 褚亮은 침착하면서도 풍간을 잘하여太宗을 친정을 떠날 때 褚亮을 불러 시종하게 한 경우가 많았다.¹⁵⁾

13) 《舊唐書》〈蕭德言傳〉 참조.

14) 위의 책: “朕歷觀前代, 詳覽儒林, 至于顏, 閔之才, 不終其壽; 游, 夏之德, 不逮其學. 惟卿幼挺珪璋, 早標美譽. 下帷閉戶, 包括《六經》; 映雪聚螢, 牢籠百氏. ……頃年已來, 天下無事, 方欲建禮作樂, 偃武修文. 卿年齒已衰, 教將何恃.”

15) 《舊唐書》〈褚亮傳〉 참조.

虞世南(558~638)은 字가 伯施이고 越州 余姚人이다. 어렸을 때 형 虞世基와 더불어 顧野王에게 학문을 배웠다. 陳나라와 隋나라에서 모두 秘書郎에 제수되었고, 唐나라 때는 이세민에게 발탁되어 陳府 文學館과 弘文館에서 學士를 지냈으며, 貞觀7年(633)에 秘書監에 오른다. 虞世南은 唐太宗의 秦王 시절부터 정책과 학술의 고문을 맡으면서, 唐太宗과 신분과 나이를 뛰어넘는 교분을 나누었다. 唐太宗은 虞世南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나에게 한 몸과도 같은 사람이었다”고 할 만큼 슬퍼했다고 한다.¹⁶⁾

뛰어난 帝王學 이론가이자 역대 전적에 정통한 학자였던 虞世南의 경력과 업적을 고려하면, 그가 《群書治要》의 편찬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虞世南은 《帝王略論》을 저술하여 역대 帝王들의 성패를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隋나라 때에는 《北堂書鈔》 160卷을 편찬할 정도로 학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唐太宗은 그를 “걸아다니는 秘書省”으로 부를 정도였다. 이러한 점에서 虞世南은 《群書治要》의 편찬에서 절대로 뺄 수 없는 人選이었을 것이다.

《群書治要》의 서문을 작성한 魏徵(580~643)은 字가 玄成이고 鉅鹿 曲城人이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지만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道士가 되었다. 大業 13年(617) 瓦崗軍의 李密에게 발탁되어 文學參軍이 된다. 이후 隋末唐初의 혼란한 정국에서 군웅들의 막료로 활동하다가 결국 武德 4年(621) 다시 唐나라에 귀순하여 太子 李建成의 洗馬를 지낸다. “玄武門의 변란” 이후 太宗이 정적이었던 魏徵을 중용한 것을 유명한 일이거나와, 貞觀年間에 諫議大夫, 秘書監, 侍中 등의 요직을 거친다. 魏

16) 《舊唐書》〈虞世南傳〉.

徵은 중국의 대표적인 諫官으로 유명하지만, 貞觀 시기 문교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도 맡는다. 貞觀 2年(628) 秘書監에 제수되어 隋末唐初의 대혼란의 와중에 산일되었던 황실 秘府의 도서를 확충하고, 貞觀 10年(636)에는 《隋書》, 《周書》 등의 史書 편찬사업의 책임자가 된다.

《群書治要》는 魏徵이 秘書監을 맡고 있었던 貞觀 5年(631)에 편찬되는데, 그는 《群書治要》의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서문을 쓰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국가의 운영 방침을 정하는 데에 탁월한 안목을 지닌 魏徵 이 책의 서문을 씌으로써 《群書治要》는 단지 자료의 집적인 아닌 帝王學의 교과서가 될 수 있었다.

魏徵을 제외한 虞世南, 蕭德言, 褚亮 등 세 명은 모두 南朝의 陳나라 출신으로 전형적인 東南 士人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貞觀 시기 弘文館에서 學士를 지냈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群書治要》 편찬의 실제적인 작업은 弘文館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弘文館의 주요한 임무인 저술과 강학, 군왕의 정치적 顧問, 도서의 정리 등인데, 이는 《群書治要》의 편찬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新唐書》〈藝文志〉에는 “劉伯莊《群書治要音》五卷”이 저록되어 있는데, 劉伯莊은 貞觀 시기 弘文館 학사를 지낸 저명한 《漢書》 학자였다. 이를 통해 보면 《群書治要音》 역시 弘文館에서 편찬한 《群書治要》의 주석서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4. 《群書治要》의 편찬 특성

위에서 언급했듯이, 《群書治要》는 經部에 속하는 문헌 12종, 史部 문헌 8종,¹⁷⁾ 子部 문헌 48종을 그 성서(成書)의 연대 순서대로 배열하고 있다.¹⁸⁾ 그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經部 12종

卷1: 《周易》, 卷2: 《尚書》, 卷3: 《毛詩》, 卷4~卷6: 《春秋左氏傳》,
卷7: 《禮記》, 卷8: 《周禮》, 《周書》, 《春秋外傳國語》, 《韓詩外傳》,
卷9: 《孝經》, 《論語》, 卷10: 《孔子家語》.

△ 史部 8종

卷11~卷12: 《史記》, 《吳越春秋》, 卷13~卷20: 《漢書》,
卷21~卷24: 《後漢書》, 卷25~卷28: 《魏志》, 《蜀志》, 《吳志》,
卷29~卷30: 《晉書》

△ 子部 48종

卷31: 《六韜》, 《陰謀》, 《鬻子》, 卷32: 《管子》,
卷33 《晏子》, 《司馬法》, 《孫子》,
卷34: 《老子》, 《鶡冠子》, 《列子》, 《墨子》, 卷35: 《文子》, 《曾子》,
卷36: 《吳子》, 《商君子》, 《尸子》, 《申子》,

17) 《群書治要》에서는 《三國志》를 《魏志》, 《蜀志》, 《吳志》로 나누고 있어, 현재의 문헌 감각으로 보면 史部에서 6종의 서적을 절초하고 있다.

18) 각 문헌의 분류와 성서 연대는 《群書治要》 편찬 당시의 문헌지식을 반영한 것으로서, 현재의 일반적인 분류기준이나 성서연대 비정(比定)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卷37: 《孟子》, 《慎子》, 《尹文子》, 《莊子》, 《尉繚子》,
 卷38: 《孫卿子》, 卷39: 《呂氏春秋》,
 卷40: 《韓非子》, 《三略》, 《新語》, 《賈子》,
 卷41: 《淮南子》, 卷42: 《鹽鐵論》, 《新序》, 卷43: 《說苑》,
 卷44: 《桓子新論》, 《潛夫論》, 卷45: 《崔寔政論》, 《昌言》,
 卷46: 《申鑑》, 《中論》, 《典論》,
 卷47: 《劉廙政論》, 《蔣子》, 《政要論》,
 卷48: 《體論》, 《時務論》, 《典語》, 卷49: 《傅子》,
 卷50: 《袁子正書》, 《抱朴子》

《群書治要》에 수록된 문헌들의 구성을 일별하면 두 가지 사항이 주목을 끈다. 첫째, 특히 역사 문헌을 중시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부(史部)의 문헌과 《좌전(左傳)》이 전체적 분량에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다. 둘째, 유가의 문헌이 많이 선택되기는 했지만, 정치적 통찰을 제공하고 국정 운영에 현실적으로 유용한 이론들을 다양한 영역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群書治要》의 편찬의 내용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1) “역사를 거울로 삼는다(以史爲鑑)”

貞觀之治의 주요한 구호 중의 하나는 “역사를 거울로 삼는다[以史爲鑑]”였는데, 《群書治要》의 편집에서도 이러한 이념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卷2의 《尚書》와 卷11의 《史記》上에서는 주로 黃帝, 顓頊, 帝嚳, 堯, 舜, 禹, 湯, 秦皇帝의 간략한 전기를 다루고 있으며, 卷4~6 《左傳》, 卷8 《國語》, 卷12 《史記》下에서는 춘추전국 시대 각국의 군주와 명인

의 행적을 수록하고 있다. 卷13에서 卷30까지는 해당 斷代史를 중심으로 兩漢, 三國, 兩晉의 주요 사건과 인물에 대한 기록을 싣고 있다. 《群書治要》는 이러한 편집형식을 통해서 간략하지만 체계적으로 중국고대의 역사를 재구성하면서 역대 帝王들의 흥망과 득실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賈誼의 《過秦論》은 卷40의 《賈子》에 수록하지 않고 卷11 《史記》上에 史論의 형식으로 싣고 있는데, 이러한 편집방식은 秦나라가 급속히 붕괴하는 원인을 고찰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貞觀 시기의 군신들은 이러한 “역사를 거울로 삼는” 방법으로 “안정된 시기에 위기를 생각한다[居安思危]”는 원칙을 강조한다. 이 말은 원래 《左傳》襄公十一年의 기록에 보이는 “안정된 시기에 위기를 생각하라. 생각하면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하면 걱정이 없을 것이니, 이를 법도로 삼아야 한다(居安思危, 思則有備, 有備無患, 敢以此規)”는 魏絳의 언술에서 유래한 것인데, 《群書治要》卷5 《左傳》襄公十一年 부분에는 이 개념을 직접 발췌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와 유사한 내용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群書治要》卷1 《周易》〈繫辭〉下에 나오는 “군자는 편안할 때 위기를 잊지 않고 흥성할 때 멸망을 잊지 않으며 다스려질 때 혼란을 잊지 않는다(君子安而不忘危, 存而不忘亡, 治而不忘亂)”라는 구절을 싣고 있으며 卷2 《尚書》〈周官〉에는 “영광에 있을 때 위기를 생각한다(居寵思危)”라는 말이 보인다.

“안정된 시기에 위기를 생각한다”는 사상은 秦나라와 隋나라의 멸망을 거울로 삼아 도출한 결론이었다. 貞觀 시기의 군신들은 隋나라가 2대로 멸망하는 것은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隋末唐初 대혼란을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한 나라가 몰락하는 과정과 원인에 대한 토론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그러한 토론의 과정을 통해 분노한 민중이 강대한 제국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특히 “물과 배”의 비유를 통해 선명하게 나타난다. 魏徵이나 岑文本과 같은 신하들은 太宗과 토론하는 자리나 상소문에서 “군주는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배를 뜨게 할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며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배와 물에 비유한다.¹⁹⁾

현존하는 문헌을 찾아보면 “물과 배”의 비유는 《荀子》〈王制〉 편에서 처음 보이며 《孔子家語》〈五儀〉 편에서도 유사한 표현이 나오는데, 《群書治要》에서도 각각 권38과 권10에서 같은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²⁰⁾ 《群書治要》에서 인용한 이러한 내용들은 唐 太宗이 국가를 운영하면서 “옛일을 거울로 삼고” “안정된 시기에 위기를 생각하는” 태도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群書治要》의 “以史爲鑑”의 태도는 특히 漢代史를 특별히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책에서 漢代史를 다루는 부분은 卷13에서 卷24까지의 《漢書》와 《後漢書》로 책 전체의 거의 사분의 일에 다 다르다. 이는 貞觀시기의 군신들이 漢나라를 제국 운영의 모델로 삼았기 때문이다. 《群書治要》에서는 특히 열전을 중심으로 《漢書》와 《後漢書》를 절초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 卷13과 卷20이 일실되어 정확히 통계를 낼 수 없지만, 현존 《群書治要》에서는 총 146명의 漢代 인물의 전기를 수록하고 있다. 이렇게 열전을 중시하는 현상은 《魏志》, 《蜀志》, 《吳志》, 《晉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대부분 賢臣들의 전기이

19) 《貞觀政要》〈政體〉: “君, 舟也; 人, 水也. 水能載舟, 亦能覆舟”. 〈君道〉, 〈論災殃〉, 〈教誡太子諸王〉 편 등에서도 유사한 표현이 발견된다.

20) 《荀子》〈王制〉: “君者, 舟也; 庶人者, 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 《孔子家語》〈五儀〉: “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所以載舟, 亦所以覆舟也. 君以此思危, 則危可知之矣.”

다. 이런 점에서 보면, 《群書治要》에서 각 史書의 열전을 절초한 부분은 貞觀 시기의 名臣들의 略傳을 모아놓은 《貞觀政要》〈任賢〉편의 형식과 유사하다. 《貞觀政要》의 〈任賢〉편에는 貞觀 시기에 太宗이 발탁한 名臣들의 간략한 전기가 수록되어 있어 이후의 군주들에게 현신들을 판별하고 기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참고자료의 역할을 하는데, 《群書治要》의 편집자들도 그와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漢나라 이래의 명신들의 전기를 상당한 분량으로 選錄한 것으로 보인다.

2) 간명하고 핵심적인 치국의 이론

《群書治要》에서 經部와 子部에 속한 서적을 選錄할 때는 여러 가지 시각에서 제국 운영의 각종 문제를 사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唐 太宗이 즉위한 후 시행한 일련의 문교정책을 魏徵은 “偃武修文”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했는데, 이 개념은 원래 《尚書》〈武威〉에 나오는 “왕께서 商에서 豐으로 돌아온 후 武를 멈추고 文을 닦으셨다(王來自商, 至于豐, 乃偃武修文)”에서 유래한다. 정현은 이에 대해 “무기를 거꾸로 실어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禮射를 시행하고 학교를 세워 文教를 정비했다(倒載干戈, 示不復用也. 行禮射, 設庠序, 修文教也)”고 해설하고 있다.

《群書治要》는 이렇게 국가 운영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면서 그것을 명쾌한 언어로 표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貞觀”이라는 연호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 말은 《周易》〈繫辭〉下에서 유래하는데, 《群書治要》 卷1에서는 본문과 韓康伯의 주석을 같이 인용하고 있다.

천지의 도는 사람에게 옳음을 보이는 것이다.(천지의 만물은 항상

그 올바름을 유지함으로써 온전하게 쓰인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日月의 도는 옳음을 밝히는 것이다. 천하가 움직이는 것도 그 옳음은 하나이다. 천지의 큰 덕이 생명이고 성인의 큰 보배가 位이다. 어떻게 位를 지킬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 仁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해야 사람이 모이나 문는다면 財라고 답하겠다.(재물은 사물이 의지하여 생겨나는 곳이다.) 財거를 다스리고 말을 바르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면, 그것이 바로 義이다.²¹⁾

인용문에서 보이는 “천지의 큰 덕이 생명이고, 성인의 큰 보배가 位이다(天地之大德曰生, 聖人之大寶曰位)”라는 구절은 《帝範》 서문의 첫 구절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群書治要》의 또 하나의 편찬 취지는 貞觀之治를 이끌어 나가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절초된 자부의 문헌들을 《群書治要》와 거의 동시대에 편수된 《隋書》〈經籍志〉의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儒家類가 17종, 法家類, 雜家類가 각각 8종, 道家類, 兵家類가 각각 6종, 名家類, 墨家類가 각각 1종씩이다. 비록 이 중에서 유가의 문헌이 삼분의 일이 조금 넘는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法家, 雜家 등 국가 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담론이라면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편집자들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魏徵이 저술한 《隋書》〈經籍志〉의 總序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易》에서는 “천하는 같은 곳을 지향하지만 거기에 이르는 길은 모두 다르고, 하나로 모아지지만 생각은 수없이 많다”고 했다. 儒家, 道

21) 《群書治要》卷一《周易》：“天地之道，貞觀者也。(明夫天地萬物，莫不保其貞以全其用也。) 日月之道，貞明者也。天下之動，貞夫一者也。天地之大德曰生，聖人之大寶曰位。何以守位，曰仁。何以聚人，曰財。(財所以資物生也。) 理財正辭，禁民爲非，曰義。”

家, 小說家は 모두 성인의 가르침이지만 각각 치우친 점이 있다. 兵家와 醫方은 모두 성인의 다스림이지만 그 시행 방법이 다르다.…… 만약에 모든 것을 총괄하여 버리지 않고 절충하여 도에 맞게 사용하면 교화를 일으키고 안정된 통치에 이르게 될 것이다.²²⁾

《隋書》〈經籍志〉의 사상과 마찬가지로 《群書治要》에서도 “교화를 일으키고 안정된 통치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내용이라면 모두 수록하고 있다. 諸子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원래 《史記》〈太史公自序〉에 수록된 司馬談의 〈論六家之要指〉와 매우 유사하다. 司馬談은 陰陽家, 儒家, 墨家, 名家, 法家, 道家는 모두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표현과 강조점이 다를 뿐이라고 주장한다.²³⁾

재미있는 사실은 〈論六家之要指〉에서 儒家에 대해 “넓지만 요점이 부족하여 익히는 데에 힘이 들지만 이루는 것은 적다. 이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바를 끝까지 다 따르기가 어렵다(博而寡要, 勞而少功, 是以其事難盡從)”라고 평가했다는 점이다. 《群書治要》의 서문에서 “六經이 두서없이 나누어지고 百家가 서로 격렬하게 논박하는 상황에서, 理와 性을 다하는 것은 힘들지만 이루는 것이 적고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도 넓긴 하지만 요점이 부족하다(六籍紛綸, 百家踳駁, 窮理盡性則勞而少功, 周覽汎觀則博而寡要)”라고 한 것을 떠올리면, 《群書治要》가 방대하지만 간명하지 않은 유가 문헌에 대해 어느 정도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22) “《易》曰: ‘天下同歸而殊途, 一致而百慮.’ 儒, 道, 小說, 聖人之教也, 而有所偏. 兵及醫方, 聖人之政也, 所施各異. …… 若使總而不遺, 折之中道, 亦可以興化致治者矣.”

23) 《史記》〈太史公自序〉: “夫陰陽·儒·墨·名·法·道德, 此務爲治者也, 直所從言之異路, 有省不省耳.”

《群書治要》의 편찬자들은 어떤 특정한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당시 자신들이 처한 문제적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내용에 중점을 두어 제자서를 選錄했다. 貞觀 시기 군신들의 주요한 문제의식으로는 군주의 도리, 권력구조, 위민정책, 인재의 등용, 간언의 수용, 德政과 刑政, 국토확장, 이민족 정책, 문교정책 등으로서 그 이론적 근거는 주로 子부의 문헌을 얻었다. 이러한 이론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집되었다. 이러한 주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특히 漢代의 政論書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新語》, 《賈子》, 《鹽鐵論》, 《說苑》, 《桓子新論》, 《潛夫論》, 《崔寔政論》, 《昌言》, 《申鑑》, 《中論》, 《典論》, 《劉廙政論》, 《蔣子》, 《政要論》, 《體論》, 《時務論》, 《典語》, 《傅子》, 《袁子正書》 등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은 貞觀之治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제공하고 있다.

5. 결론

《貞觀政要》에서는 唐太宗이 군주에게 학문과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강조하는 부분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어렸을 때는 항상 전장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여가가 없었지만 貞觀 이후에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²⁴⁾는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唐太宗의 책읽기는 즉위 이후에 시작되었지만, 짧은 시간에 큰 학습 성과를 보인다. 그런데 그의 독서가 단지 한 好學君主의 취향의 문제에 그치는 것

24) 《貞觀政要》〈慎終〉: “少從戎旅, 不暇讀書, 貞觀以來, 手不釋卷.”

이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唐太宗이 수많은 책을 탐독한 것은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고 완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실제적으로太宗은 독서를 통해 국가운영의 방침을 정하고 변화된 정책을 세울 수 있었다. 이를테면 貞觀之治를 이루어내는 데에 책읽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唐太宗이 어떤 책을 어떻게 읽었느냐 하는 점이다. 《貞觀政要》를 비롯해 태종과 관련된 사료에서 산발적으로 보이는 唐太宗의 독서 기록을 보면 그가 주로 역사서를 즐겨 읽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唐太宗의 독서는 개인적 취미의 일환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책의 바다”에서 유유자적할 수는 없었다. 핵심적 내용만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唐太宗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한 것이 弘文館 학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東南 士인들이었다. 그들은 唐太宗의 독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책을 새롭게 편찬한다. 제목 자체가 “여러 책에서 치국의 핵심만을 뽑았다”는 의미를 갖는 《群書治要》였다. 東南 士인들의 입장에서도 이 책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唐太宗에게 더욱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群書治要》 편찬을 통해 얻게 되는 이득이었다.

이 글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탄생한 《群書治要》의 정치적, 문화적 의미를 탐색하는 작업이었다. 이 책은 역대 국가의 흥망에 관한 사례, 국가운영의 이론적 근거와 구체적 정책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제왕학 교과서였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황제 한 사람만을 위한 책으로서 그 유통범위가 극단적으로 협소했기 때문에, 《群書治要》는 일실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 실제로 貞觀 시기 이후 唐 제국의 체계가 공고해지면서 이 책에 대한 황실의 관심도 떨어지고 결국 南宋 시기에 이르러 중

국에서는 완전히 일실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특별한 역할이 거의 없었던 책이라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군서치요》가 편찬될 당시 국가 운영의 방침에 대해 격렬한 이론 투쟁이 전개되었다는 점, 황실 내부에서는 치국의 참고체계와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 내기 위한 활발하게 진행했다는 점, 이 책의 편찬에 참여한 네 명이 東南 士人들의 핵심적인 성원이었다는 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정관지치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거의 포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책은 역사의 이면에서 상당히 큰 작용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參考文獻

- 魏徵, 《群書治要》四部叢刊本, 上海: 商務印書館, 1929.
- 魏徵, 《群書治要》叢書集成初編本, 北京: 中華書局, 1985.
- 魏徵撰, 《隋書》, 北京: 中華書局, 1999.
- 劉昫等撰, 《舊唐書》, 北京: 中華書局, 1997.
- 歐陽修, 宋祁撰, 《新唐書》, 北京: 中華書局, 2003.
-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整理, 《周易正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整理, 《尚書正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 司馬遷撰,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97.
- 班固撰, 《漢書》, 北京: 中華書局, 1997.
- 王溥撰, 《唐會要》, 北京: 中華書局, 1995.
- 謝保成集校, 《貞觀政要集校》, 北京: 中華書局, 2003.
- 劉知幾撰, 浦起龍釋, 《史通通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 司馬光編著, 《資治通鑑》, 北京: 中華書局, 1996.
- 福井保, 〈天明版《群書治要》校勘始末記〉, 日本書誌學會, 《書誌學》第6卷第3~4號, 東京: 書誌學社, 1936.

尾崎康, 〈《群書治要》とその現存本〉, 《斯道文庫論集》第25輯, 東京: 慶應大學, 1991.

吳金華, 〈略談日本古寫本《群書治要》的文献學價值〉, 《古文献整理與古漢語研究續集》, 南京: 鳳凰出版社, 2007.

尾崎康, 〈虞世南の《帝王略論》について〉, 《斯道文庫論集》第五輯, 1967.

김광일, 〈《群書治要》의 일본전래〉, 《中國語文學》 제52집, 영남중국어문학회, 2008.

中文摘要

本文讨论的对象是貞觀五年(631)由魏徵等奉敕編纂的《群書治要》。该书是摘錄六十八種唐前古典而編爲五十卷的一種群書節鈔彙編，其所採摭内容主要涉及到治國要領。《群書治要》編纂後深得唐太宗的欣賞，然而唐皇室逐漸失去了對此書的關注，自南宋以來中國久佚，只在日本留傳。作爲一種針對性較強的材料彙編，《群書治要》不但普及範圍極爲狹窄，而且編纂後不久徹底被忘卻了，因此似乎在歷史上沒有起了特別作用。但是，考慮到參加編纂的四個人物，仔細分析其所採摭的内容，就能發現貞觀時期著名的治國口號均見於該書內，比如“居安思危”、“偃武修文”、“撫民以靜”、“以史爲鑑”、“任賢致治”、“求諫納諫”等等。這意味著《群書治要》明顯地反映了貞觀君臣，尤其是東南士人的政治指向，同時爲他們提供了有力的理論根據。貞觀以來，歷代東亞君主將彙輯貞觀君臣治國言論的《貞觀政要》，推崇爲第一部帝王學教材，貞觀君臣本身反而渴求簡明扼要的治國指南，《群書治要》則是這種渴求的結果之一。從這意義上看，《群書治要》在歷史的背後發揮了很大的作用。